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

김혜선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인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동의존에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강원 영동지역 4년제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22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총 299명 설문하여 그 중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로 분류된 91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알코올중독성인자녀가 전체의 30.43%였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공동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는 아버지의 비밀관성, 과잉간섭, 방임, 어머니의 방임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공동의존의 하위변인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형성하였으나 공동의존의 하위변인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유의한 변인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공동의존에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 부모의 양육행동, 공동의존

1. 서론

술은 인류의 생사고락과 함께 해왔다. 기쁨 때는 축배의 도구로, 슬플 때는 위로의 도구로, 인류의 삶에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그런 술이 인간을 망치는 지, 아니면 인간이 술을 망치는 지 우리사회는 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주폭(酒爆)이란 신종어까지 등장해 문제음주¹⁾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10대 중 ‘위험음주 학생’ 비율이 48.8%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2), 대학생의 음주율은 90%를 훌쩍 넘기고 있고²⁾(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2; 천성수, 2002), 근로자의 67.8%가 고위험 음주자 이상으로 드러나(제갈정, 2010)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술과 심하게 얽혀있어 보인다.

1) 음주자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음주상태를 국내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등의 낙인성을 고려하여 ‘문제음주’라 부른다(이용표 외, 2000; 최윤정, 2004; 천성수 외, 2009).

2) 천성수(2002)는 96.7%,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2)는 94.4%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의 폐해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다는데 있다. 문제음주는 사회의 근원 조직인 가족을 병들게 하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음주자인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함에 따라 부모부재의 상황에서 자녀들은 아동기 발달 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의존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달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박현선, 2003). 즉 부모가 알코올중독자인 자녀들은 비일관적이고 예측불허의 가정생활로 인해 혼돈과 긴장, 실망감 등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며(이종숙, 2004)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의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문제들을 드러낸다(이창원, 2005). 이들을 알코올중독자 자녀(COA: Children of Alcoholics)라 부르며,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알코올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라고 부른다(김혜련 외, 2004).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정서와 행동상의 문제를, 성인기에는 알코올의존 등의 전 인생주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현명선·남경아·김명아, 2008), 그 원인 중 하나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자기비난과 죄책감뿐만 아니라 폭넓고 파괴적이며 불필요한 결과들을 수용함으로써 대인관계상의 친밀감 형성을 억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자아를 가지고 성장하며(Whitfield, 2006), 정체성, 친밀감, 경계선, 사고와 감정 표현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공동의존성때문이다(Cermark, 1986).

공동의존은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대상이나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며(Smalley, 1986), 다른 사람의 문제, 고통, 삶 때문에 자신의 삶이 좌우되는 특성을 말한다(Beattie, 1992). 이러한 공동의존은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자 알코올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Beattie, 1992)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 규칙을 안정화하고 개념화하여(Subby & Friel, 1984) 자녀의 성장에서 부정(denial)이란 기제를 형성하고(Ackerman, 1983), 통제와 강한 돌봄 성향(Collins, 1993)의 공동의존의 행동들을 학습시킨다(Wegscheider-Cruse, 1984). 결과적으로 공동의존은 타인초점과 자기무시, 원가족 특성으로 인한 만성 불행감과 의사소통의 문제, 낮은 가치감, 자기 숨기기 그리고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의료적 문제(Wegscheider-Cruse & Cruse, 1990) 등을 일으키면서 밖으로는 강하고 유능하며 감정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혼란스럽고 외롭고 의존적이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학대하고, 화를 내며, 예측할 수 없고 무책임한 공동의존자를 만들어낸다(Friel & Friel, 1988, 유희동·정우경 역, 2010).

그렇다고 모든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이 부모가 알코올중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의존성을 보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외의 선행연구들³⁾은 부모의 양육행동, 알코올중독 그리고 공동의존

3) Carson & Baker(1994)가 171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의존과 아동학대와의 관계 연구에서 학대경험이나 부모의 알코올중독은 전체의 59%에 달했고, Roehling, et. al.(1996)가 21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의존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조사한 결과에서 부모의 학대가 부모의 알코올중독과 공동의존 사이에서 중재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Crothers & Warren(1996)의 연구에서도 성인 공동의존자의 공동의존은 어머니의 공동의존, 아버지의 공동의존, 강박적 어머니, 강압적인 어머니, 강압적인 아버지 그리고 통제하는 아버지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의 공동의존 회복과정을 질적 연구한 이명진(2010)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인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인해 공동의존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공동의존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이명진(2010)의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인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공동의존의 회복과정에 초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연구들은 여대생의 가족기능, 부모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김혜련 외 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의 적응(최윤정, 2004), 역할유형(이상균, 2003; 박현선, 2003), 영성과 주관적 안녕(김정희 외, 2010), 사회적응(김용진·주석진, 2011), 성인자녀의 부모역할(김한나, 2012) 등으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부모 양육행동과 공동의존을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공동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들의 공동의존에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강원 영동지역 4년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1-4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22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수업시간 전후로 학생들의 양해를 구해 307부를 설문하였다. 이 중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4부와 부모 중 어느 한 부모의 양육행동에만 답변한 4부를 제외한 총 299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⁴⁾를 사용하여 최종 연구대상인 91명(남자 36명(39.6%), 여자 55명(60.4%))을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4) 이 척도는 Jones(1981)가 알코올중독자인 부모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별하고 조기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한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를 김미례·장환일·김경빈(1995)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척도다. 본 척도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아동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게 되어 있고, 6점 이상을 얻는 사람은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분류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김정희 외(2010)에서 $\alpha=.93$, 천성수·민경숙(2011)에서 $\alpha=.91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8757$ 이었다.

2. 측정도구

1)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허묘연(199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설문지로서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 2점(대개 아니다), 3점(대개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채점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김정향(2012)의 연구에서 감독(아버지, $\alpha=.79$, 어머니 $\alpha=.79$), 합리적 설명(아버지, $\alpha=.79$, 어머니 $\alpha=.79$), 비밀관성(아버지, $\alpha=.82$, 어머니 $\alpha=.82$), 과잉기대(아버지, $\alpha=.67$, 어머니 $\alpha=.65$), 과잉간섭(아버지, $\alpha=.80$, 어머니 $\alpha=.81$), 학대(아버지, $\alpha=.80$, 어머니 $\alpha=.82$), 방임(아버지, $\alpha=.72$, 어머니 $\alpha=.75$), 애정(아버지, $\alpha=.84$, 어머니 $\alpha=.82$)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아버지, $\alpha=.79$, 어머니 $\alpha=.77$), 합리적 설명(아버지, $\alpha=.81$, 어머니 $\alpha=.79$), 비밀관성(아버지, $\alpha=.70$, 어머니 $\alpha=.67$), 과잉기대(아버지, $\alpha=.82$, 어머니 $\alpha=.82$), 과잉간섭(아버지, $\alpha=.82$, 어머니 $\alpha=.83$), 학대(아버지, $\alpha=.86$, 어머니 $\alpha=.75$), 방임(아버지, $\alpha=.69$, 어머니 $\alpha=.67$), 애정(아버지, $\alpha=.84$, 어머니 $\alpha=.82$)였다. 각 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손석한 외, 2001).

(1) 감독(Monitoring)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합리적 설명(Reasoning)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어떤 행동이 용납되고, 용납이 안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과 훈육적인 처벌을 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동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가 포함된다.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비밀관성(Inconsistency)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보이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는 것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과잉기대(Over-expectation)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최고가 되라고 강조하고 지적인 성취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 과잉간섭(Intrusiveness)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행동과 간섭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6) 학대(Physical abuse)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상처가 남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한다.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7) 방치(Neglect)

자녀의 신체적·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8) 애정(Affection)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께안아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공동의존

공동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Hughes-Hammer, Martsof & Zeller(1998)에 의해 개발된 공동의존 사정검사 COAT(the Codependency Assessment Te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egscheider-Cruse &

Cruse(1990)가 정의한 공동의존의 핵심증상, 타인초점/자기무시, 낮은 가치감, 자기 숨기기, 원가족 특성, 의학적 문제의 5가지 영역으로 공동의존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동시통역사, 영문학 박사과 심리학 박사과 함께 배다현(2008)에 의해 번안되었다.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그렇지 않다’는 2, ‘보통 그렇다’는 3, ‘자주 그렇다’는 4, ‘항상 그렇다’는 5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Hughes-Hammer, *et. al.* (1998)의 연구에서 타인초점/자기무시 $\alpha=.86$, 낮은 가치감 $\alpha=.90$, 자기 숨기기 $\alpha=.78$, 원가족 특성 $\alpha=.90$, 의료문제 $\alpha=.94$ 였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90$ 이었다. 배다현(2008)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결과 $\alpha=.78$ 에서 $\alpha=.94$ 의 범위였고, 내적 일치도는 $\alpha=.78$ 에서 $\alpha=.91$ 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초점/자기무시 $\alpha=.76$, 낮은 가치감 $\alpha=.87$, 자기 숨기기 $\alpha=.72$, 원가족 특성 $\alpha=.90$, 의료문제 $\alpha=.81$ 였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859$ 이었다. 각 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Hughes-Hammer, *et. al.* 1998).

(1) 타인초점/자기무시(Other Focus / Self Neglect)

조작(manipulation)이나 조언을 주는(advice-giving)등을 통해 사건이나 사람을 돕거나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모습으로, 이 개념은 통제와 경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등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거나, 사람이나 사건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낮은 가치감(Low Self Worth)

자기비난, 자기혐오, 수치심 그리고 자기비하의 생각 등의 정체감 형성의 문제를 의미한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못마땅해 하고 모든 면에서 자책하고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며 자신을 싫어하는 상태 등이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자기 숨기기(Hiding Self)

느낌 억제와 함께 부정적인 감정을 덮고 겉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감정을 엄격하게 억제하거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도록 숨기거나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원가족 특성(Family of Origin Issues)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거나 느끼지 않아야 했던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약물의존의 가정 또는 문제에 압도된 가정에서 성장한 결과로서 억압과 감정을 부정하는 학습된 행동으로 정의된다. 가족안에서 문제점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다거나 문제가 있고 감정이 메마르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가정에서 성장했거나 솔직한 애정, 감정, 의견을 드러내어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 등이 포함된다. 총 5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5) 의료적 문제(Medical Problem)

가족과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혹은 상상속의 건강상의 어려움과 온전하지 않은 몸상태에 대한 걱정과 몰두와 함께 최근 건강상의 좋지 않음을 호소함을 의미한다. 위, 간, 장 또는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있을까 걱정하거나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기거나 아프고 기운이 없는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변인 차

1) 성별에 따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유의하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

구분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t
부	감독	10.39(2.911)	10.25(2.958)	.213
	합리적 설명	12.94(3.242)	12.93(3.891)	.022
	비일관성	8.17(2.844)	9.02(2.578)	-1.479
	과잉기대	11.97(3.776)	12.31(4.203)	-.389
	과잉간섭	14.50(4.687)	14.62(4.605)	-.119
	학대	9.53(3.676)	8.18(3.104)	1.879
	방치	7.36(2.576)	8.58(3.059)	-1.978
	애정	13.22(3.892)	14.45(4.448)	-1.136

<표 1> 성별에 따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계속)

구분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t
모	감독	9.22(3.109)	8.49(2.741)	1.180
	합리적 설명	12.31(3.495)	11.96(3.621)	.447
	비일관성	8.06(2.378)	9.04(2.426)	-1.900
	과잉기대	12.06(3.14)	12.00(4.333)	.650
	과잉간섭	14.86(4.752)	15.82(5.585)	-.847
	학대	9.14(3.634)	8.55(2.898)	.863
	방치	7.31(2.955)	7.60(2.991)	-.461
	애정	12.64(4.072)	12.78(4.614)	-.151

※ *p<.05, **p<.01, ***p<.001

2) 공동의존에 대한 성별의 차이

공동의존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평균점수로 볼 때, 남학생이 타인초점/자기무시와 의료문제에서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낮은 가치감, 자기숨기기, 원가족 특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공동의존 하위변인의 차이

공동의존 하위 변인	남자 평균(S.D.)	여자빈도 평균(S.D.)	t
타인초점/자기무시	13.47(3.308)	13.04(3.682)	.574
낮은 가치감	11.58(4.487)	12.27(4.560)	-.710
자기 숨기기	13.47(4.116)	14.00(3.844)	-.623
원가족 특성	13.72(4.320)	14.53(4.095)	-.897
의료문제	11.81(5.159)	11.67(3.968)	.138

※ *p<.05, **p<.01, ***p<.001

2.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사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별하는 기준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경우(실질적으로 .6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이학식·임지훈, 2008)와 분산팽창지수(VIF) 5이상(정은주·안정선, 2009)인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60미만이고 VIF가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48.5%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653, p<.001$).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43.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990, p<.001$). 각 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의 방치($\beta=.391, p<.01$), 비밀관성($\beta=.209, p<.05$) 그리고 과잉간섭($\beta=.266,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는 아버지가 방치할수록, 비밀관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과잉간섭을 할수록 공동의존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감독, 과잉기대, 애정, 학대는 공동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방치($\beta=.286, p<.05$)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는 어머니가 방치할수록 공동의존의 수준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공통된 요인인 방치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다.

<표 3>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

구분	공동의존(아버지)		공동의존(어머니)	
	β	t	β	t
감독	-.075	-.757	.078	.750
합리적 설명	.070	.648	.019	.149
비밀관성	.209	2.133*	.172	1.506
과잉기대	.070	.693	.088	.775
과잉간섭	.266	2.275*	.189	1.339
학대	.054	.568	.141	1.471
방치	.391	3.421**	.286	2.221*
애정	-.217	-1.838	-.102	-.797
R ²	.485		.438	
수정된 R ²	.435		.383	
F	9.653***		7.990***	

※ * $p<.05$, ** $p<.01$, *** $p<.001$

3.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과의 상관관계

이번에는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4미만이고 VIF가 1-2사이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하위변인인 타인초점/자기무시에 대한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25.45%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F=3.488, p<.01$), 타인초점/자기무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25.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3.444, p<.01$),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beta=-.318,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을수록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공동의존은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표 4>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타인초점/자기무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타인초점/자기무시(아버지)		타인초점/자기무시(어머니)	
	β	t	β	t
감독	-.116	-.971	.039	.326
합리적 설명	-.249	-1.915	-.318	-2.158*
비일관성	1.162	1.372	.140	1.058
과잉기대	.124	1.021	.040	.307
과잉간섭	.157	1.115	.265	1.624
학대	.087	.768	-.036	-.324
방치	.202	1.466	.259	1.740
애정	-.114	-.802	-.148	-.999
R ²	.254		.252	
수정된 R ²	.181		.178	
F	3.488**		3.444**	

※ *p<.05, **p<.01, ***p<.001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인 낮은 가치감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낮은 가치감에 대해서 29.3%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54, p<.001). 각 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방치($\beta=.375$, p<.01)와 애정($\beta=-.282$, p<.05)이 영향력을 보여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는 아버지가 방치할수록, 아버지가 애정을 쏟지 않을수록 가치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낮은 가치감에 2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F=4.041, p<.001), 유의한 변인은 없었다.

<표 5>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변인이 공동의존의 낮은 가치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낮은 가치감(아버지)		낮은 가치감(어머니)	
	β	t	β	t
감독	-.012	-.107	.155	1.313
합리적 설명	.131	1.033	.127	.882
비일관성	.189	1.646	.153	1.187
과잉기대	-.039	-.331	-.019	-.148
과잉간섭	.257	1.875	.294	1.841
학대	-.097	-.881	.185	1.707
방치	.375	2.798**	-.020	-.138
애정	-.282	-2.046*	-.094	-.648
R ²	.293		.283	
수정된 R ²	.224		.213	
F	4.254***		4.041***	

※*p<.05, **p<.01, ***p<.001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인 자기 숨기기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기숨기기에 23.4%의 설명력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3.130, p<.01$), 아버지의 방치($\beta=.408, p<.01$)와 애정($\beta=-.359, p<.05$)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는 아버지가 방치할수록, 아버지의 애정을 경험하지 못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숨기기에 미치는 영향은 21.7%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843, p<.01$), 어머니의 애정($\beta=-.310, p<.05$)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는 어머니의 애정을 경험하지 못할수록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애정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표 6>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자기숨기기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자기 숨기기(아버지)		자기 숨기기(어머니)	
	β	t	β	t
감독	-.029	-.240	.142	1.157
합리적 설명	-.007	-.054	-.051	-.337
비일관성	.084	.705	.017	.128
과잉기대	.186	1.514	.209	1.568
과잉간섭	.054	.379	.190	1.142
학대	-.060	-.520	-.068	-.597
방치	.408	2.923**	.252	1.658
애정	-.359	-2.495*	-.310	-2.043*
R ²	.234		.217	
수정된 R ²	.159		.141	
F	3.130**		2.843**	

※* $p<.05$, ** $p<.01$, *** $p<.001$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인 원가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원가족 특성에 48.3%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578, p<.001$). 각 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방치($\beta=.232, p<.05$)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아버지가 방치할수록 원가족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느끼지 않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원가족 특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원가족 특성(아버지)		원가족 특성(어머니)	
	β	t	β	t
감독	.117	1.171	.105	1.029
합리적 설명	.166	1.531	.013	.105
비밀관성	.115	1.168	.170	1.518
과잉기대	-.129	-1.276	-.095	-.854
과잉간섭	.201	1.718	-.115	-.827
학대	.075	.796	.039	.411
방치	.232	2.025*	.382	3.016**
애정	.155	1.313	.303	2.399*
R ²	.483		.457	
수정된 R ²	.433		.404	
F	9.578***		8.640***	

※ *p<.05, **p<.01, ***p<.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원가족 문제의 영향은 45.7%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640, p<.001). 각 요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방치(β=.382, p<.01)와 애정(β=.303,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는 어머니가 방치할수록, 애정을 경험할수록, 원가족 특성으로 인해 감정표현과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방치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인 의료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의료문제에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F=3.069, p<.01), 영향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의료문제에 26.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F=3.636, p<.01).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의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학대(β=.284, p<.05)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학대가 공동의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8〉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동의존의 의료문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의료문제(아버지)		의료문제(어머니)	
	β	t	β	t
감독	-.203	-1.669	-.181	-1.512
합리적 설명	.124	.936	.212	1.449
비밀관성	.119	.998	.071	.539
과잉기대	.106	.859	.152	1.173
과잉간섭	.170	1.186	-.006	-.036
학대	.171	1.488	.284	2.582*
방치	.045	.320	.085	.575
애정	-.096	-.665	-.102	-.694
R ²	.230		.262	
수정된 R ²	.155		.190	
F	3.069**		3.636**	

※ *p<.05,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알코올중독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동의존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수는 30.43%로,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에 대해 연구한 윤명숙(2006)의 32.9%, 김정희(2008)의 33.2%, 김정희 외(2010)의 33.2%, 여대생을 연구한 김혜련 외(2004)의 36%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수가 정확히 보고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알코올중독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Whitfield, 2006)과 알코올중독자의 자녀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부인하는 성향(Black, 1984)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수치는 더 많은 수의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별이 공동의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동의존을 여성에 대한 낙인이라고 비판했던 의견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의존은 공동의존이 돌봄과 양육 그리고 희생과 타협을 자주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결부되어 여성을 폄하하고 사회의 변화에 역행하는 개념으로 치부되기도 했고(Hands & Dear, 1994), 배척되기도 했으며 학문적으로 퇴보되기도 했다(Martsof, *et. al.* 1999). 하지만 본 연구는 공동의존이 “남과 여”의 성별과는 상관이 없다는 선행연구들⁵⁾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Dear & Robert(2002)가 성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이 심리학과 재학생들로 여학생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덜 공동

5) Cowan & Warren(1994)과 Dear & Robert(2002)의 각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과 남자 대학생이 공동의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Friel & Friel(1988)은 그의 저서에서 공동의존을 남과 여로 구별하는 그릇된 이원론과 정형화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유희동·정우경 역, 2010).

의존적이거나 남학생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더 공동의존적인 것은 아닌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이라는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셋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방치, 과잉간섭, 비밀관성이, 어머니의 방치가 공동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방치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다양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요인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김혜련 외(2004)의 연구에서 여대생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은 아버지와 애착정도에 따라 자존감과 우울에서 어머니의 애착정도보다 상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알코올중독 성인자녀가 알코올중독자가 될 확률이 비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에 비해 4배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장수미, 1992)를 토대로 본 연구와 동일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알코올의존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과 비교한 장혁진(2010)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총점이 아버지에서 유의하게 증가했고, 어머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는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개입의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동의존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먼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이 공동의존의 타인초점/자기무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들이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건지 가족 체계에 있는 건지 혼란스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다섯째, 공동의존의 하부 변인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은 자기 숨기기와 원가족 특성에서 엇갈린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먼저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경험하지 못할수록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삼키는 법을 학습하면서 자신이 표면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무리 없이 기능하는 것처럼 거짓된 성숙을 보인다(고병인, 1998).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에 대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여러 연구들(손석환 외, 2001; 장혁진, 2009; 김정향, 2012; 이용택, 2012)에서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양육행동인 어머니의 애정이 공동의존을 강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역설적이라 생각된다. 즉 어머니로부터 칭찬과 의견의 존중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할수록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원가족 특성에 영향을 받아 공동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중독자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애정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자녀가 지각한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어머니의 애정은 "사랑해/저리가", "네가 필요해/네가

필요 없어”, “네가 자랑스럽다/너 때문에 창피하다”와 같은 무의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수록 그런 일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중메시지(Friel & Friel, 1988, 유희동 외 역, 2010)에 의한 이중구속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충성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자녀가 부모가 서로 거의 상반된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면 한쪽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한 쪽 부모에게 충성을 보이는 현상(Boszormenyi-Nagy, *et. al.* 1991; 김용태, 1999 재인용)인 분열된 충성심의 형태인지도 고려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공동의존에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강원 영동지역 사회복지학과 1~4학년 재학생들로, 설문에 응한 299명중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로 선별된 91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변인과 공동의존의 하위 변인은 성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방치, 비밀관성, 과잉간섭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방치가 유의한 변수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공통된 요인인 방치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다.

셋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의 하위변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넷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의 하위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초점/자기무시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부적 관계)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낮은 가치감은 아버지의 방치(정적 관계)와 애정(부적 관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는 요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자기 숨기기는 아버지의 방치(정적 관계), 애정(부적 관계), 어머니의 애정(부적 관계)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애정은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원가족 특성은 아버지의 방치(정적 관계)와 어머니의 방치(정적 관계)와 애정(정적 관계)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방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의료문제는 어머니의 학대(정적 관계)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특정 지역의 특정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분석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공동의존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지만, 알코올중독자 성인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 대한 요구, 알코올중독자 성인 자녀의 공동의존에 대한 개입의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수가 간관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와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공동의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인구군을 대상으로 연구와 비교를 통해 풍성하고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개입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사정이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합리적인 설명이 공동의존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부모교육이나 가족 개입 때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에게 가정 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에게 어머니의 애정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나 질적 연구 등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인 경우와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인 경우를 나누어 조사,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병인. 1998.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성인아이들의 특징(2). 교수논집. 12: 172-195.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우울한 청소년이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더 나빠. 2011년 11월 2일 보도자료.
- 김미례, 정환일, 김경빈. 1995. 한국어판 알코올중독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K)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4): 1182 -1193.
- 김용진, 주석진. 2011. non-ACOA와 ACOA 직장인 집단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1): 61-94.
- 김용태. 1999.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김정향.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및 분노표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8. 알코올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 실천. 7: 131-157.
- 김정희, 전선영, 최윤신, 김한나. 2010. 대학생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s)의 영성과 주관적 안녕.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1): 103-115.
- 김혜련, 전선영, 김정희. 2004.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 ACOA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 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317-343.
- 박현선. 2003. 문제성 음주자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자녀의 아동기 역할 유형이 ACOA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2: 57-80.
- 배다현. 2008.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공동의존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욱,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윤명숙. 2006. 알코올중독 가족력을 가진 대학생 자녀의 ACOA성향과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29-44.
- 이명진. 2010. 알코올 중독자 성인아이들의 동반의존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표, 최희수, 박정임. 2000. 지역사회중심의 알코올개입을 위한 공중보건적 접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 99-106
- 이웅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종숙. 2004. 알코올중독자의 의미있는 가족원을 위한 대처기술 향상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원. 2005.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심리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8. SPASS 14.0. 경기: 법문사.
- 장수미. 1992.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단기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혁진. 2009. 알코올의존 환자의 부모 양육행동.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안정선. 2009.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의 서번트 리더쉽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339-369.
- 제갈정. 2010. 근로자 음주문제와 사업장 특성과의 구조적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성수. 2002. 대학생의 폭음원인과 음주관련 문제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21-233.
- 천성수, 김미경, 윤선미, 정현미, 유재현, 이상숙. 2009. 한국인의 문제음주 및 알코올사용장애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0(2): 129-139.

- 천성수, 민경숙. 2011. 문제음주자와 정상음주자의 국가알코올정책에 대한 인식도 차이. *한국알코올과 학회지*. 12(1): 43-59
- 최윤정. 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명선, 남경아, 김명아. 2008.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7(4): 392-402.
- 한국음주문화연구소. 2012. 대학생의 알코올 소비. <http://www.karf.or.kr>.
- Ackerman, R. 1983. *Children of Alcoholics: A Guide for Parents, Educators and Therapists(2nd Ed)*. New York:Simon & Schuster.
- Beattie, M. 1992. *Codependent No More: How to Stop Controlling Others 2nd ed*. MA: Hazelden.
- Black, C. 1984. *Talk o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Maryland: Gambrells.
- Casron, A. T. & R. C. Baker. 199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odependency in Wom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9(3): 395-407.
- Cermark, T. 1986. Diagnostic Criteria for Codependency. *Journal of Psychoactive Drug*. 18: 15-20.
- Collins, B. G. 1993. Reconstructing Codependency Using Self-in-relation Theory: A Feminist Perspective. *Social Work*. 38: 470-476.
- Cowan, G. & L. W. Warren. 1994. Codependency and Gender Stereotyped Traits. *Sex Roles*. 30: 631-645.
- Crothers, M. & L. W. Warren. 1996. Parental Antecedents of Adult Codepend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2): 231-239.
- Dear, G. E. & C. M. Roberts.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Codependency and Femininity and Masculinity. *Sex Roles*. 46(5/6): 159-165.
- Friel, J. C. & L. D. Friel. 1988. 유희동, 정유경 옮김(2010). *역기능가정의 비밀 성인아이*. 서울: 글샘.
- Hands, M. & G. Dear. 1994. Codependency: A Critical Review. *Drug and Alcohol Review*. 13: 437-445.
- Hughes-Hammer, C., D. S. Martsof, & R. A. Zeller. 1998.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Codependency Assessment Tool.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2(5): 264-272.
- Martsof, D. S., C. Hughes-Hammer. P. Estok, & R. A. Zeller. 1999. Codependency in Male and Female Helping Profession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3(2): 97-103.
- Roehling, P. V., N. Koelbel, & C. Rutgers. 1996. Codependence and Conduct Disorder: Feminine Versus Masculine Coping Responses to Abusive Parenting Practices. *Sex Roles*. 35(9/10): 603-618.
- Subby, R. & J. Friel. 1984. Co-dependency - A Paradoxical Dependency. *In Codependency: An*

- emerging issue*. Pompano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 Smally, S. 1986. *A Intimacy Dilemma*. Brighton: SBS Publication.
- Wegscheider-Cruse, S. & J. Cruse. 1990. *Understanding Co-Dependency*.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 Whitfield, C. L. 2006. *Healing the Children Within*. 3rd ed. FL: Health Communications.

金惠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논문제목: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2004)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중독(공동의존), 가족치료, 사회복지실천기술이며, 미국 중독전문가(C.A.S), 중독회복전문가(C.R.S)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부회장 및 강원지부장, 태백시와 평창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슈퍼바이저로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년 후기 남녀 유배우자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생활을 중심으로(2008)",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2009)", "이혼 한 여성 한 부모의 어머니 경험: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2010)" 등이 있다(welcom-kim@kangwon.ac.kr).

투 고 일: 2013년 03월 02일

수 정 일: 2013년 03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04월 01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Codependency in ACOAs of University Students

Hye Sun Ki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codependency in ACOAs of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seek the intervention methods to solve the codependency of ACOA. To do so, total 299 subjects from students of Dept. of Social Welfare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East Province of Gangwon-do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s. First, the subjects of ACOA were 91(30.43%).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sex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codependency. Third, codependency was affected by father's Inconsistency, Intrusiveness, Neglect and mother's Neglect. Fourth, sub-factors of codependency had th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each sub-factor of codependency was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 discussed some differentiated intervention methods and gave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codependency